

행복한 금요 편지

마음 다스리는 글

임성수

한반도선진화재단 기획홍보위원¹⁾

재우야!

은행에서 일하느라 고생이 많지?

나름 열심히 일했는데, 인사고과가 잘 안 나와 마음고생이 크겠다.

인사고과 결과에 너무 신경 쓰지 마라.

그래도 너는 취직하기 어려운 세상에서, 직장에 잘 다니고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 것이냐!


아빠도 지난 현역시절 돌이켜 보면, 승진이 안 됐을 때 마음이 많이 아팠던 경험이 있단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 마음 아픔이 한갓 부질없는 물결이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 했다고 네 자신이 스스로 인정할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단다.

아빠는 예불독송경 처음에 나오는 '마음 다스리는 글' 중에서, "오는 것을 거절 말고 가는 것을 잡지 말며, 일이 지나갔음에 원망하지 말라"라는 글을 늘 되새겨 본단다.

1) 행복편지를 기고해 주신 임성수 한반도선진화재단 기획홍보위원은 통일대학동문회 회장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인사고과가 잘 안 나온 결과가 왔더라도, 고과를 주신 상사를 비난하는 등 그것을 거절하려 하지 말고, 담담히 받아들이는 마음의 여유를 한번 가져 보면 어떻겠니?

왜 그런 결과가 재우한테 왔는지? 곰곰이 되돌아보며, 그 인과관계를 한 번 성찰해 보는 것은 어떻겠니?

주위에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을 싫어하는 등 거절하는 마음보다도 “내 인연으로 저런 사람이 왔으니 담담히 받아들여보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겠니?

보왕삼매론(寶王三昧論)에서도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기를 바라지 마라.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면 마음이 스스로 교만해 지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내 뜻에 맞지 않는 사람들로써 원림(園林)을 삼으라 하셨느니라’라는 말씀도 있지 않니?

재우가 귀한 기회를 받아온 이 세상에 주어진 인연이라면 그 사람이 설령 네 취향이 아닌 사람이라도, 감사히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여 한번 받아들여 보면 어떻겠니?

재우야!

아빠가 재우에게 바라는 것은 귀한 기회를 받아 이 세상에 왔다면, 임재우라는 소아(小我)에 너무 집착하지 않고, 늘 넓게 대아(大我)를 보면서 주위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전진하는 자랑스러운 아들의 모습이란단다.

노자께서도 도덕경에서 ‘물은 항상 남들이 싫어하는 낮은 곳을 향하므로 도(道)에 가깝다. 그러므로 지극한 선(善)은 물과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니? 우리 재우도 재우라는 소아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 늘 대아를 추구하여 흐르는 물과 같은 자연스러움을 갖는 대장부가 되기를 바란다.

이것은 아빠가 이루지 못한 것이기에 재우에게 바라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렇게 한 평생 추구하다 보면, 그것이 또한 행복한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한선행복포럼에서는 ‘행복한 금요편지’이란 에세이를 통해 행복의 가치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당신의 소중한 편지를 기다리겠습니다. 행복을 함께 나누어 주세요!